취업수기 공모 당선작

두려움 없는 도전으로 이룩한 취업

Sky Soft 여 지 섭

청년실업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저 또한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 당시의 눈물겨웠던 사투와 노력 그리고 갈등이 생각납니다.

현재 저는 포트리스로 유명한 'X2GAME'의 개발 자회사 'Sky Soft'에서 게임운영&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 나의 젊음을 펼쳐 보이겠다고 다짐한 것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활성화되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PC게임, 게임기 게임, 오락실 게임 등 수많은 게임을 가리지 않고 접해보며 저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음, 게임을 즐기며 포트폴리오를 구상한다니 정말 재미있게 취업준비를 했구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처음엔 그렇게 재밌던 게임들도 즐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혼자 게임업계 입문을 준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게임관련 아카데미 1년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수료한 후에야 어렵사리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게임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접한 이야기로 게임업계의 현실은, 마음 맞는 사람 몇 명이 작은 창고나 사무실 하나를 얻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을 새가며 게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3D직종이며 고생하는 것에 비해 보상이나 대우도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임업계에 들어간다면 과연, 내가 그 난관을 이겨내고 정진할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과연 나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고 또한 현실적인 대우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직장이 될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은 열악한 업계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언론에서는 리니지, 뮤, 포트리스 등이 엄청난 유저수와 수익을 기반으로 벤처 신화를 달성하고 있는 게임 업계의 장미빛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취업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겪으며 들어온 현재의 회사 Sky Soft는 1년간의 고민이 한낱 기우였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앞서가는 복지혜택과 주 5일 근무, 빠른 업무진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 업무능력에 따른 인센티브제 등은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웠던 고민들을 훌훌 털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 못지않은 곳이 바로 우리회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업계 입문이라는 1차 목표를 이룬 지금의 저는 5년 안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는 것으로 2차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금도 게임업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청소년과 취업준비생이 있을 것이고, 어느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불철주야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겁니다. 그 분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게임벤처기업은 벤처를 이끌고 대표하는 최고의 기업이라고 말입니다. 또 꿈을 가지고 노력하며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과 함께 달콤한 과실도 안겨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반드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저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도 꿈과 행복 모두를 이룰 수 있는 벤처기업에서 자신의 포부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벤처기업 1사1인 채용운동 참여 안내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1사1인 채용운동'에 벤처기업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감사패를 드립니다.

참여방법

-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벤처기업 전문 구인구직사이트 (http://job.venturenet.or.kr)에 채용공고 등록
- 인력 채용 후 협회 담당자에게 E-mail 연락(기업명, 대표자명, 담당자,연락처, 채용직원 정보, 입사일 등을 기재)
- 담당자 : 사업1팀 최형인 주임(02-6009-4100, 내선106, E-mail : izar@kova.or.kr)